



13 광령천
학술 탐사

광령천 주변마을의 신앙과 세시풍속

김재경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1. 마을신앙

1.1. 외도1동 우렁이마을 포제

외도1동 우렁이 마을의 포제는 음력 7월 초정일에 추제로 지낸다. 제일이 다가오면 마을사람들이 모여 택일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대체로 정해일이 가장 좋으며 정유일은 좋지 않은 날로 여기고 있다. 외도1동에서 모시는 신은 포신지령(醕神之靈)인데 한반도에서 포신(醕神)은 천연두를 앓게 하거나 재앙(災殃)을 내리는 신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포제가 한 해 마을의 안녕을 위해 치러지는 의례임을 알 수 있다. 우렁이마을 포제의 제일은 원래 정월과 칠월 이렇게 두 번 지냈는데 1960년대 후반부터 새마을운동으로 인하여 본향당 곳과 고사가 중지되고 음력 7월 들어 첫째 정일 또는 해일에 유교식 포제만을 지내는 것으로 바뀌었다.

가. 향회

포제가 열리기 보름이나 열흘 전에 마을회관에서 포제향회를 연다. 신년초의 마을총회와는 별도로 모이는데 남자들만 참여할 수 있으며 이 자리에서 제관을 선출한다. 제비는 30여 년 전까지는 보리쌀 한 되씩을 집집마다 받았으나 지금은 마을사람들의 돈을 회사하거나 음료수와 제주를 가지고 온다.

제관은 7명(헌관 3명, 알자 1명, 대축 1명, 집사 1명)을 선출하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헌관 3명(초헌관, 아헌관, 종헌관) 집사 6명(집례, 알자, 대축 전사관 양집사) 이렇게 9명을 선출하였다. 양집사 중 동쪽에 서는 집사는 헌관에게 잔을 드리고 서쪽에 있는 집사는 잔을 상에 올린다. 경우에 따라 겸직을 하기도 하는데 대축을 초헌관이 겸하기도 한다. 근래에 들어서는 초헌관과 전사관은 따로 선출하지 않고 초헌관은 노인회장이 맡고 전사관은 마을 이장이 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2012년 초헌관은 김용국, 아헌관은 김석중, 종헌관은 김건우가 맡았다.

나. 입제

예전에는 일주일동안 정성을 하였으나 지금은 3일 동안 포제단에서 합숙한다. 포제단은 현재 마을 동쪽 구릉 '던더리동산'에 있는데 원래 '너븐밭(사장터)'에서 '납세밧물'을 이용하여 지냈다. 당시 포제단은 현무암 자연석을 다듬어 제단으로 삼고 주위에는 나지막한 담을 장방형으로 두른 형태였다. 그러나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되어 개발사업이 이루어지면서 포제단을 옮겨와 현재의 위치에서 지내기 시작하였다.

제관은 합숙기간 매일 목욕재계하고 첫날 저녁부터 셋째날 저녁까지 일곱 끼를 먹는다. 저녁 5시쯤 제터에 가서 입제를 하면 합숙이 시작된다. 예전에는 제단 주위에 금줄을 쳤으나 요즘에는 차가 많이 다니기 때문에 치지 않는다.

다. 제물

제물로 사용하는 메는 도(稻, 쌀), 양(梁, 서숙), 서(黍, 기장) 직(稷, 피) 4가지를 올렸으나 서숙, 기장, 피를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쌀 한 그릇, 찹쌀 한 그릇, 노란 차조 한 그릇, 메조 한 그릇을 올리는 것으로 바뀌었다. 우렁이 마을에서는 희생(犧牲)으로 돼지를 사용하는데 제일 오후가 되면 마을 사람들이 모여 직접 잡으며 돼지털은 뜨거운 물을 이용해서 제거한다. 폐백으로는 광목, 시렁목, 한지를 사용하고 포는 육포(牛肉)를 준비한다. 그 외의 제물로 말린 명태, 조기, 미나리, 도라지, 부투, 마른소금, 밤, 대추, 잣, 은행, 호두 등이 있으며 모두 익히지 않은 날 것을 사용한다. 또한 제주(祭酒)는 예전에는 직접 담아 사용하였는데 근래에 들어서는 양조장에 탁주를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다.

라. 제의

제의는 보통 오후 9시경 제사를 시작하며 제의시간은 1시간 ~ 1시간 30분 정도이다. 원래 자시에 제를 지냈으나 4·3사건으로 야간통행이 금지 된 후부터 오후 9~10시에 제를 지내는 것으로 바뀌었다. 제의가 끝나고 돼지고기를 삶아 음복을 하고 내려오면 밤12시 정도가 된다.

1.2. 외도2동 월대마을 이사제

외도2동 월대마을에서는 매년 정월에 마을제를 지낸다. 마을제의는 이사제라고 부르나 '마을제', '포제'라고 부르기도 한다. 제사의 대상은 이사지신이다. 제일은 입춘 지나고 처음으로 맞이하는 정일이나 묘일이나 대개는 정일을 택한다. 마을 상황에 따라 중정일이나 하정일로 옮기기도 한다.

제장은 마을회관 3층에 마련되어 있다. 본래는 이 마을 바닷가 341번지에 해당하는 곳에 있었으나 지금은 사라지고 없으며 그 자리에는 새 건물이 들어서 있다. 절차는 매우 간소화 되어 있다. 축문과 홀기는 모두 한글로 되어 있고, 정성도 하루만 한다. 제의는 자시에 시작하고 끝나면 음복을 한다.

가. 향회

포제를 치르기 20일 내지 한 달 전에 마을 총회를 연다. 이 자리에는 세대주 모두가 참석하여 포제에 대하여 의논한다. 여기에서 제관과 집사를 선정하고 제물을 준비할 아녀자 3명을 정한다. 제사의 비용은 마을 공동기금으로 대부분 충당한다. 각 가정마다 초행례라 하여 결혼, 신축, 특납하는 경우 제주나 쌀, 돈을 내기도 한다.

삼헌관(三獻官)은 60세 전후의 사람, 집사는 결혼한 청년들이 맡는다. 집례는 50~60세의 남자들이 맡고, 대축은 40~50대가 맡는다. 헌관은 초헌관, 아헌관, 종헌관 이렇게 세 명이고, 집사는 집례, 대축, 전사관, 좌집사, 우집사 이렇게 다섯 명으로 제관은 총 8명으로 구성된다. 전사관은 일반적으로 마을회장이 맡는데 40년 즈음 전까지 소사가 있어서 전사관이 하는 허드렛일을 모두 맡아하였다.

나. 입제

과거에는 3일동안 합숙하다가 1990년대 후반부터 당일만 마을회관에 모여 포제를 준비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다. 제물

입제한날 새벽에 목욕재계 후 수태지 한 마리를 잡아서 끓는 물로 털을 벗기고 내장을 꺼내어 실로 잘 묶어 올린다. 아침 6~7시에 포제터 제청에서 돼지를 잡고 포제터를 청소하고 천막을 친다.

라. 제의

제물을 진설하고 12시에 제를 지낸다. 제차는 다른 포제와 동일하다. 희생 말고도 돼지 한 마리를 더 잡아 곧 있을 체육대회 때 마을주민이 다 같이 나누어 먹는다. 제목과 제기는 마을 회장이 관리하며 마을회관에 보관한다. 제기는 낫그릇과 나무그릇을 병용하는데 메 그릇은 낫그릇이며 나머지는 나무그릇이다. 한편 월대에서는 역대 제관 명단과 물종기를 문서로 기록하여 보관해두고 있다.

1.3. 외도2동 연대마을 동제

외도2동 연대마을에서는 매년 음력 정월 동제를 지낸다. 동제는 매년 음력 정월 첫 정일에 지내는데 마을에 상이나면 다음 정일을 택하게 된다. 그 대상신은 이사지신이다. 연대마을 동제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정확히 기억하는 제보자는 없었으나 4·3당시 중단된 것을 제외하고는 계속 이어졌다고 한다.

제단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 마을회관에 제물을 진설하여 제사를 모시고 있다. 예전에는 정결한 밭을 골라 임시 제장으로 쓰기도 하였고 포구 안쪽에 포제단을 만들기도 하였으나 현 마을회관을 신축하면서 옮겨왔다. 포제단이 있을 때도 겨울의 바닷바람과 추위를 견디기 어려운 탓에 다른 곳에서 제사를 지내기도 하였다.

가. 향회

음력 정월이 되면 정기총회를 열어 마을제에 대해 논의한다. 제관 선정, 비용 등에 대한 사항이 여기에서 논의된다. 과거에는 집집마다 쌀을 걸어 제사를 비용을 마련하였으나 지금은 인근 업체에서 회사하는 기금으로 제사비용을 마련한다.

제관은 3헌관과 집사 4명으로 구성한다. 보통 50대 이상이나 집사는 30대 이상이면 가능하다. 원칙적으로 결혼을 하지 않은 미혼자는 제관이 될 수 없다. 또한 친척중에 초상이 난 사람이 없어야 하고 장애가 있어서는 안된다.

나. 입제

제관은 제의일자가 다가오면 마을회관에서 삼일정성을 드린다. 생선, 돼지고기, 쇠고기를 먹지 않고 김이나 나물등의 야채를 주로 먹는다. 제관뿐만이 아니라 음식을 준비할 여성 2명도 같이 합숙한다. 합숙 전에 미리 장을 봐서 3일분의 식사와 제물 등을 준비한다. 합수 첫날 차, 사람을 막기 위해 마을 동쪽과 서쪽 입구와 제관이 있는 곳에 제관들의 직접 원새끼를 꼬아 만든 금줄을 친다. 과거에는 전사관의 집을 제청으로 삼아 정성하였다.

입제하면서 포제를 준비하는데 홀기는 따로 없으며 축문은 한글로 지어 사용한다. 축문의 내용은 “오곡백과 풍성, 가축번성, 수산풍요, 모든 생업 순조, 소득증대, 협동단결, 리세확장, 안정질서, 이웃화목, 2세건강” 등이다.

다. 제물

희생은 제사를 지내기 전날 아침에 처리한다. 뜨거운 물로 털을 제거하고 내장을 빼낸다. 제상은 트인 방위를 가려 놓는다.

라. 제의

행제를 앞둔 제관들은 먼저 향물로 몸을 닦는다. 제는 일반 기제사와 같이 자정에 올린다. 행제가 끝난 뒤인 1시나 1시 30분 쯤에는 가마솔에 돼지를 삶아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다. 돼지 갈비 부분은 제관에게 나누어 준다. 과거에는 연로한 어른 댁이나 초상집에 돼지간을 보냈으나 요즘에는 제장에 온 사람을 대상으로 그 자리에서 먹거나 나누어 준다.

연대마을에서는 아직도 여성과 외부인의 포제참관을 철저히 금한다. 마을회관 2층에 마련된 제장에는 제관과 집사 이외에는 누구도 출입할 수 없다. 포제가 끝나고 3일동안은 싸움을 하지 말고 행동을 조심하는 등 정성을 드린다. 집사명부가 기록되어 있으며 이것은 마을회장이 보관하고 있다.

1.4. 외도동 도평마을 포제

도평마을은 행정구역상 외도동에 속하는 마을로 서쪽으로 무수내(무수천)과 장군내(장군천), 동쪽으로 하운내(하운천)이 흐르고 있는 중간에 위치해 있으며 넓은 평지를 갖고 있는 중산간 마을이다. ‘뽕디(坪垌)’에 마을이 형성되었다고 하여 ‘뽕디’라 부르다가 한자로 ‘평대(坪代)’라 했다. 이후 구좌읍 평대리와 구별하기 위해



도평뽕디대통밭당

나중에 ‘도평대(都坪代)’라 바뀌었으며 이후 대(代)를 표기에서 생략하여 현재 ‘도평(都坪)’이 되었다. 도평마을의 대상신은 포신지령(醜神之靈)이며 새마을운동 당시 잠시 중단되었다가 1980년대 다시 지속되었다.

제일은 입추가 지난 뒤 정일이나 해일을 선택하는데 일반적으로 상정일에 지낸다. 그러나 마을에 변고가 있을 때는 중정일을 택해 지내기도 한다. 도평마을 포제터는 마을 동남쪽에 있다. 249번지에 해당하는 곳으로 시유지이다. 본래 ‘뽕뽕디’ 인근인 1104번지에 있었다고 하나 4·3사건 당시 마을에서 산쪽으로 멀리 떨어진 곳으로 드나들기 어려워 ‘신남동산’ 인

근인 877번지로 옮겼으나 제장으로 가려면 남의 밭으로 지나가야 하기 때문에 지금의 장소로 다시 옮겨 왔다.

가. 향회

제일 2주일 전쯤 마을회관에서 마을총회를 여는데 주민들을 이것을 ‘향회’라고 부른다. 동회장이 주관하는 이 향회에서 일년간 마을의 공동사업에 대한 보고와 결산이 이루어지고 포제의 제일, 제관 등을 협의한다. 도평마을에서는 초헌관(初獻官), 아헌관(亞獻官), 종헌관(終獻官) 삼헌관과 전사관(典祀官) 1인, 집례(執禮) 1인, 대축(大祝) 1인, 찬자(贊者) 2인, 알자(謁者) 1인, 봉향(奉香) 1인 이렇게 10제관을 선정하는데 과거에는 13명이었다고 한다. 마을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기 위해서 포제의 제관은 제례법을 잘 아는 이를 선발하는데 미혼자나, 상주(喪主), 상처(喪妻)한지 얼마 안 된 사람은 뽑지 않는다고 한다. 또한 초헌관은 후덕하고 인심이 좋은 분으로 모시는데 최근 몇 년 간 초헌관은 최복남(영농회장)이 맡았다. 예전에는 제의 봉행에 필요한 제비를 마련하기 위해 집집마다 제미(祭米)를 거출하여 운영하였으나 20여 년 전부터 일정액의 현금을 받는다. 2012년에는 10개 반별 집집마다 5000원씩 받았으며 부족분은 마을 기금으로 충당하였다.

나. 입제

도평마을의 포제는 포제동산에서 치러지지만 입제정성은 마을회관 앞 경로당을 빌어 제청으로 삼는다. 예전에는 ‘두일레 열나홀’ 즉 7일 밤낮 동안 사가에서 합숙을 했다고 하나 요즘에는 이틀동안 제청(경로당) 내에서 합숙하며 외출을 삼간다. 입제하고 나면 부정한 사람들의 출입을 금하기 위해 제청인 경로당 출입구와 마을 진입로 3곳 포제동산 입구에 ‘삿(금출)’을 맨다. 입제 첫째 날에는 제관들이 서로 상견례를 하는 날이다. 그리고 제의에서의 직분과 역할을 의논하게 된다. 둘째 날은 포제에 필요한 제물을 준비하는 날이다. 마을 사람들이 희생 준비를 마치면 오후에 도복을 갖추어 입고 대축은 헌관들 앞에서 축과 지방을 작성한다. 입제해 있는 동안 마을 사람들이 제관들을 찾아와 환담을 나누기도 하고 회사금을 내고 가는 경우도 있다.

다. 제물

제물은 희생으로 바치는 흑돼지 한 마리를 비롯하여 사과, 배, 밤, 대추, 비자, 꽃감, 유자 등 7가지 과일, 시루떡, 생선 등이다. 희생은 검은 수돼지 한 마리를 날것으로 올리는 데 내장을 빼고 통째로 올린다. 이때 염통과 간은 따로 올린다. 예전에는 입제 3일째 되는날 정오쯤에 돼지를 잡았으나 지금은 둘째날 오전 양돈업자에게 주문한다. 제의 당일 오후 9시경이 되면 제단에 진설할 조, 피, 쌀을 찌서 메를 준비하고 폐백(幣帛)으로는 명주 석자, 백지 한 권을 마련한다. 제물 마련은 입제 둘째 날 부녀회의 협조를 받아 마을회에서 담당한다.

라. 제의

도평마을 포제는 오후 10시 30분경에 시작한다. 준비한 제물을 제단으로 옮겨 2개의 제단에 '새'를 깔고 진설한다. 이후 제의 시간인 자정까지 포제동산 내에서 대기한다. 제의 절차는 일반적인 유교식 기제사와 비슷한 전폐례-초헌례-독축-이헌례-종헌례-음복례 순이다. 제의가 끝나면 제관들이 포제동산에서 간단하게 음복하고 마을회관으로 내려와 삶은 돼지고기로 마을 주민들이 모여 음복한 뒤 귀가한다.

1.5. 노형동 해안마을 포제

해안마을은 처음에 축산단지 북쪽 '주르레'라는 곳에서 설촌하였다. 마을사람들은 그곳을 가리켜 '묵은가름'이라 부른다. 해안마을에서는 음력 정월 '당제', 음력 칠월 '포제' 이렇게 두 번의 마을제를 행하고 있다.



해안 포제당

당제는 축문을 써서 유교식으로 치르고, 음력 7월에는 초정일 또는 혹정혹해일을 택하여 후일제로 마을 포

제를 지낸다. 동당의 당신 '대왕별'을 동당지령, 서당의 당신 '송씨할망'을 서당지령이라 하며 포제의 신명을 신지령이라 한다.

해안마을에는 '동당', '서당' 이렇게 두 개의 마을당이 있다. 동당(東堂, 대왕별)은 하르방당·웃당이라 하고 서당(西堂, 향씨할망, 송씨애미)은 할망당·알당이라고 한다. 우선 서당부터 심방을 빌어 모시고 나중에 동당으로 가 모시는 듯 당곳을 크게 모셨다고 한다. 하지만 근래에는 간소화 되어 당제만을 봉행하고 있다. 마을 총회에서 덕망있는 분을 추천받아 제관을 선정하고 제의를 치른다.

해안초등학교 동쪽 '이승물 동산', 농협감귤창고 옆에 '해안 포제단'이 있다. 포제단은 옛날 학교 옆에 있었는데 감귤농협 창고를 지으면서 당옆에 옮겨 모셨다가 해안동이 향회 재현 마을이 되면서, 창고 옆 50평의 토지를 매입하여 새로 포제단을 꾸미게 되었다.

가. 향회

포제향회는 제일 3일 전에 열고 거기에서 제관을 선출하는 동시에 제소를 정하여 입제에

들어간다. 예전에는 12제관과 함께 예비 제관까지 13제관을 선출하였으나 1980년대부터 10제관을 두어 제를 모시고 있다. 제관 선정은 향회에 참석한 마을 주민들의 추천에 의해 삼헌관(三獻官)을 우선 선발하고 나머지 제관을 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해안마을 출신자들이 주축이 된다. 초행례(初行禮)라 하여 처음 제관이 되면 마을 사람들에게 술 1되를 내던 전통이 있었으나 현재는 하지 않는다. 예전에는 집집마다 제비를 걷었는데 요즘에는 마을 기금을 활용하여 제사를 지내고 있다.

나. 입제

해안마을에는 향회에서 제관으로 선정됨과 동시에 입제에 들어간다. 선정된 제관들은 향회가 끝나면 집으로 돌아갔다가 입제 준비를 하고 다시 제청으로 온다. 입제 후 가장 먼저 하는 것은 제청 입구와 마을 입구에 '삿(금줄)'을 치는 것이다. 이후 제관들 간에 상견례를 하고 향후 일정에 대해 논의한다. 입제 후 제일(祭日)까지 제관들은 함께 숙식하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시기에는 식비가 부담되어 각자 집에서 먹고 다시 나왔다고 한다. 그러나 요즘에는 제관들의 부인들이 매 식사 때가 되면 제청으로 와서 식사 준비를 해준다. 입제 정성을 하는 기간에는 마을 사람들이 찾아와 위로하고 회사금을 내고 가는 경우도 있다. 입제 둘째 날은 제물을 준비하는 기간이다. 희생을 준비하는 것은 마지막 날 아침 10시 이후이다. 그리고 '제물 봉하기'가 마지막날 3시 경에 이루어지므로 그 전에 제의와 관련된 모든 제물을 준비한다. 축과, 지방, 폐백상장의 발, 생코 제주(祭酒)로 사용될 감주의 제조도 그 전에 이루어진다.

다. 제물

우순풍조와 마을 안녕을 위하여 흑돼지 1마리를 희생으로 바쳐 제를 지내며 기타 제물로는 유자, 대추, 꽃감, 밤, 피자, 사과 등 7과일 육포, 쇠고기, 옥돔, 마른명태, 미나리채 등을 준비한다. 모든 제물은 메를 제외하고는 날것으로 올리는 것이 원칙이라고 한다.

라. 제의

제의 시간이 되면 홀기에 적힌 대로 엄숙히 제사를 받든다. 먼저 집례, 친자 두 제관이 먼저 사배를 올리고 관수를 한 후 각자의 위치로 가서 자리한다. 그리고 집례가 부르는 홀기에 따라 제집사들이 나와 사배를 올리고 초헌관에게 가서 제가 시작됨을 알린다. 제의 순서는 일반적인 유교식 포제의 절차와 비슷하다.

1.6. 광령1리 포제

광령1리에서는 매년 봄과 가을에 춘추포제(春秋酬祭)를 지내다가 1979년 마을회의를 거쳐 춘제만을 지내기로 합의하여 현재는 정월에 유교식으로 지낸다. 광령1리의 포제단은 몇 번

이설하여 지금의 위치로 오게 되었는데 원래 ‘서적굴동산’에 있던 것을 서낭동산(船皇童山)으로 옮겼고 몇 년 후 광대왓(廣大田)으로 옮겼다. 그러다가 1968년 광령초등학교가 증축하게 됨에 따라 1968년 1월 13일 현재 위치인 즈고왓동산(白高田童山)으로 이설하였다.

가. 향회

광령1리에서는 제관을 선출하기 위해 이장의 주관하에 제일 3일전에 제향회(祭鄉會)를 개최하여 3헌관(三獻官), 9집사(九執事) 이렇게 12명의 제관을 선출한다. 이 제향회는 집집마다 1명이상이 참여하는데 보통 호주가 참석하며 호주가 없는 경우 20세 이상의 대리인이 참석한다. 만약 제향회에 불참하게 되면 ‘궐’이라 부르는 벌금을 내게 되는데 예전에는 좁쌀 1되를 내었으나 요즘에는 돈으로 지불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제향회의 주관은 이장이 한다. 과거에는 향장(鄉長)이 회의를 주재하였으나 1980년대 이후부터는 행정과 관련된 일은 모두 이장이 도맡아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향회의 의제는 제관 선출, 제비 마련, 제일 선정이다. 제관은 초헌관(初獻官), 아헌관(亞獻官), 종헌관(終獻官), 집례(執禮), 대축(大祝), 알자(調者), 봉향(奉香), 집례(集禮), 봉로(奉爐), 봉작(奉爵), 전작(奠爵), 사준(司樽), 찬자(贊者), 전사관(典祀官) 이렇게 12명을 선출한다. 제관의 자격은 마을에 거주하는 남자이면 될 수 있는데 보통 삼헌관은 학식이 있고 나이가 든 지역유지를 선출한다. 제일(祭日)은 보통 입춘 후 초정일(初丁日)을 선택 하는데 헌관들의 운수와 맞지 않는다면 초해일(初亥日)로 하는 경우도 있고 마을내 부정한 일이 있을 경우 중정(中丁)이나 말정(末丁)으로 연기하기도 한다.

나. 입제

선정된 제관은 제일 3일 전부터 사취에서 합동숙식을 하며 목욕 등으로 몸을 깨끗이 하고 조문과 문병을 가지 않는 등 몸가짐을 바르게 한다. 입제 첫날 전사관은 집례, 초헌관 등과 의논하여 제례에 사용한 물을 길어 오는데 이를 ‘물봉(水奉)’이라 부른다. 물봉하는 장소는 일반적으로 독지굴이나 절물이었는데 2000년대 들어 삼다수를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후 출입구에 금줄을 걸어 잡인들의 출입을 막는다. 입제 둘째 날은 제청으로 가서 제장(祭場)을 청소하고 제관들끼리 합동으로 목욕을 하러 간다.

다. 제물

제물 준비는 전사관이 도맡아서 진행하는데 메는 도(稻, 쌀), 양(梁, 서숙), 서(黍, 기장) 직(稷, 피) 4가지 메를 올렸으나 서숙, 기장, 피를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쌀 두 그릇, 노란 차조 한 그릇, 메조 한 그릇씩을 올리는 것으로 바뀌었다. 광령1리에서는 토신, 포신에게 제를 올리기 때문에 희생(犧牲)으로 돼지 2마리를 사용하는데 마을 노인회관에서 제의 전날 잡는다. 폐백(幣帛)으로는 명주 석자, 백지 한권을 쓰며 포는 육포(牛肉)와 어염(魚鹽)을 사용한

광령1리 포제의 현장



제관



입제정성



제물진설



포제제행



포제제행



포제제행

다. 채소류는 무채와 미나리채 등을 쓰는데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과일은 대추, 꽃감, 밤, 유자, 비자를 사용하며 제주(祭酒)는 탁주를 쓴다. 모든 제물은 메를 제외하고는 낱것으로 올리며 토신과 포신에게 각각 두 개의 상을 차린다.

라. 제의

제가 전일 해시(亥時)가 되면 제단으로 나가 자시(子時)가 되면 제관이 홀기에 적힌 대로 엄숙히 제사를 받든다. 제의 절차는 일반적인 유교식 제의와 비슷하나 토신위과 포신위에 모두 제를 봉해야 하기 때문에 토신에게 먼저 제를 올린 뒤 포신에게 제를 봉행한다. 제의가 끝나면 제관을 비롯하여 마을의 임원, 유지, 제관 등이 음복하는 것으로 제의 절차가 끝난다.

1.7. 광령2리 포제

광령2리에서는 음력 정월에 심방을 빌어 ‘당굿’, 음력 칠월에 유교식 ‘포제’ 이렇게 두 번의 마을제를 했는데 1970년대 후반 정월 초정일(初丁日)에 유교식으로 한번만 지내는 것으로 바뀌었다. 제당(祭堂)은 마을사람들이 ‘서당쿨’, ‘서당’ 이라 부르는데 리사무소를 지나 쪽에 쪽낭(팽나무) 인근에 위치해 있다.

가. 향회

제관(祭官)은 양력 12월 20일에 마을총회에서 선출하는데 주민들은 이를 ‘향회(鄉會)’라 부른다. 향회에는 집집마다 1명이상이 참여하는데 불참자는 거의 없다고 한다. 그러나 집안에 상(喪)이 난 경우에는 참여하지 않는다고 한다. 향회의 소집은 예전부터 매년 해 오던 것이라 별도로 하지 않는다. 향회에서 가장 중요한 의제는 제비(祭費)를 마련하는 것과 제관을 선출하는 일이다. 제비는 포제를 지낼 금액을 예상하여 집집마다 각출한다. 2012년 제비는 4,000원이었으며 그 외에도 마을 주민 중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할 때 정성(精誠)을 드리기 위해 별도로 내기도 한다.

제관은 초헌관(初獻官), 아헌관, 종헌관, 대축, 전사관 이렇게 5명을 선출한다. 제관의 자격은 마을에 거주하는 결혼한 장년으로 집안에 큰 우환이 없으면 가능하다. 제관으로 뽑힌 사람은 제비외에 특별히 개인적으로 제물을 회사하여 정성을 보이기도 하며 초행례(初行禮, 처음 제관이 되면 마을 사람들에게 술 또는 담배를 베푸는 것)는 과거에는 했으나 현재는 하지 않는다. 제관 중에 아내가 대신을 했다거나 부정한 일이 발생하는 등의 사고가 있으면 다시 선출한다. 제의 일자 는 이미 정월 초정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따로 논의하지 않지만 때로는 초헌관, 아헌관, 종헌관의 연령에 맞추어서 택일하기도 한다. 제비마련과 제관선출이 끝나면 마을의 다른 문제도 함께 의논한다.

나. 입제

제관으로 선출된 사람들은 제의 5일전부터 입제하여 합숙에 들어가는 것이 원칙이다. 입제는 전사관(典祀官)의 집에서 합숙하며 몸과 마음을 정갈하게 하여 제의를 봉행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1980년대부터는 전사관 집에서 5일간 입제하지 않고 자신의 집에서 생활하되 다만 외출을 삼가고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 제의 마지막 날 하루만 입제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전사관 집은 좁아 많은 수의 제관이 생활하기 불편했으므로 2010년부터 개인집보다는 넓은 노인회관에서 입제하기 시작했다.

광령2리 제관들은 입제하면서부터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다. 왜냐하면 마을의 포신인 김씨 하르방이 돼지고기는 비린내가 난다고 하여 싫어하기 때문에 한 일주일 간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으며 만약 먹게 되면 부정이 난다고 믿는다. 그러나 송씨 할망은 돼지고기를 먹는다고 한다. 이 때문에 부부(夫婦)이면서도 당이 떨어져 있다고 이야기 한다.

다. 제물

제관들이 입제하면 제물을 준비한다. 광령2리 포제의 모든 제물은 날것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메도 밥을 짓는 것이 아니라 찌서 올려야 한다. 1970년대 후반까지 메는 도(稻, 쌀), 양(梁, 서숙), 서(黍, 기장) 직(稷, 피) 4가지 메를 올렸으나 서숙, 기장, 피를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쌀 두 그릇, 노란 차조 한 그릇, 메조 한 그릇씩을 올리는 것으로 바뀌었다. 다른 제물은 닭 한 마리(닭은 수탉으로 날 것을 올린다), 명주, 육포(牛肉), 밤, 대추, 비자, 꽃감, 유자 등을 마련하고 제주(祭酒)는 찹쌀로 빻은 청감주(淸甘酒), 소주를 올린다.

라. 제의

제가 전일 해시가 되면 노인회관에서 준비한 음식을 가지고 제단으로 이동하여 진설한다. 광령2리에서는 김씨 하르방과 송씨 할망이라는 부부신을 모시는데 신위에는 본향지신위(本鄉之神位)라 적는다. 자시가 되면 제관이 주도하여 제의를 지내는데 일반적인 유교식 제의와 비슷한 절차이다. 따로 홀기는 마련하지 않고 축문은 예전부터 사용하던 것을 기초로 약간 변형하여 지낸다. 제의가 끝나면 마을의 임원, 유지, 제관 등이 노인회관으로 돌아가 음복한다.

2. 세시풍속

2.1. 1월

(가) 정월멧질(설날)

광령천 유역 주민들의 세시풍속 중 가장 큰 명절은 ‘정월 멧질’이다. 1970년대 이전 먹고 살기 힘들었던 시기에도 설날이면 으레 곤쌀(흰쌀)로 만든 떡국을 나눠먹었으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에서도 자식들에게 정월 초하룻날 ‘멧질옷’이라고 부르는 설옷을 장만해주었다. 정월멧질의 풍속은 집집마다 다르나 보통 아침 일찍 일어나 친족(보통 8촌 이내) 집에 제(祭)를 지내러 간다. 이것을 ‘멧질 먹으러 간다’고 한다. 이후 일가친척들과 떡국을 나누어 먹으며 세배를 한다.

몇몇 집안에서는 정월 멧질에는 세주로 흐린좁쌀(차조)과 골(맥아, 麥芽)을 이용하여 감주를 담는다. 흐린좁쌀로 밥을 하고 골을 그래(맷돌)에 갈아 밥, 물을 넣고 발효시킨다. 발효가 된 체에 넣고 내린 후 끓이면 감주가 된다. 오래 끓일수록 농도가 짙어진다고 한다.

(나) 차례

새해 첫날 아침에 지내는 제사를 차례라 한다. 집집마다 차례를 지내는 방식은 다양한데 일반적으로 두 가지 방법으로 나뉜다. 첫 번째는 서열에 따라 고조부모제-중조부모제-조부모제-부모제 이렇게 윗대 조상을 모신 집부터 순서대로 차례를 지내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그 반대로, 아랫대 조상을 모신 집부터 부모제-조부모제-중조부모제-고조부모제 순으로 지내고 마지막으로 고조부모제를 모시는 집에서 모이는 방법이 있다.

(다) 대보름

대보름에는 당고사를 지내는 풍습이 있다. 모든 집안에서 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초 한해 운수를 점쳐 집안의 우환이 있다거나 자식이 아플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은 집에서는 가정의 안녕을 기원하기 위해서 가급적 고사를 지낸다. 외도동에서 수집한 사례에 따르면 시루떡을 만들어 한해의 운을 점치는 떡점의 풍속도 전해지는데 시루떡 위에 가족들의 이름을 써 놓고 찢 후 떡이 잘 익으면 운이 좋은 것, 떡이 잘 익지 않으면 운이 나쁜 것이라 여긴다.

(라) 결궁

결궁은 지신밟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매년 음력 정월부터 2월까지 계속된다. 가가 호호를 방문해 포수들의 액막이 놀이를 펼치고 정제굿을 한다. 매일같이 이렇게 진행하다가 밤이 되면 밤굿을 치는데, 이것은 천지의 신께 액운을 없애 달라는 의미를 지닌다. 이때는 도깨비 형상의 탈을 쓴 잡색들의 놀이를 중심으로 놀이판이 만들어진다. 광령리에서는 1970년

대 이전에 이미 걸궁을 하지 않았다고 하나 외도동의 경우에는 현재도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마) 입춘

입춘은 24절기 가운데 첫 번째 절기로 “새 철 드는 날”이라 하여 한 해의 시작을 의미한다. 광령천 유역 주민들의 세시풍속은 1970년대를 전후하여 대부분 약화·소멸되었으나 현재까지도 입춘날의 풍속은 활발히 전승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입춘날에는 ‘입춘축’을 써서 집안 곳곳에 붙이며 한해 운수를 기원하며 잡귀를 예방한다. 입춘축은 입춘대길(立春大吉), 입춘대길건양다경래백복(立春大吉建陽多慶來百福) 등을 인근에 글을 잘 쓰는 사람을 찾아가 부탁하여 준비하는 경우가 많았다.

(바) 방쉬

정월 대보름날은 ‘액막는 날(度厄)’이라 하여 방쉬를 하는데 방쉬라는 말은 방신(放神)이라는 말로 신을 쫓는다는 뜻이다. 광령천 주변마을 주민들에게 방쉬와 관련된 다양한 제보를 들을 수 있었는데 대표적인 것으로 ‘떡 방쉬’와 ‘도채비 방쉬’가 있다.

‘떡 방쉬’는 정월 대보름날 각자 자신의 뭇떡을 시루에 넣고 찐 후 떡이 설익은 사람은 한해의 운이 나쁘다 해서 그 떡을 먹지 않고 백지에 싸서 사람이 많이 다니는 길가에 버린다. 그러면 그 나쁜 액운이 조금이나마 면해진다고 믿는다.

‘도채비 방쉬’는 ‘도깨비 방쉬’라고도 불리는데 정월 대보름날 벼짚으로 사람 모양의 허채비(허수아비)를 만들고 한지로 옷을 입힌 다음 비넘굿을 한다. 그 후 그 허채비를 교차로나 바닷가에 버리면 한해 재수가 좋다고 한다.

2.2. 2월

(가) 영등굿

영등굿은 음력 2월 초하루 영등신에게 지내는 제의이다. 일반적으로 영등신은 영등하르방, 영등할망, 영등대왕, 영등호장, 영등우장, 영등별감, 영등좌수, 이렇게 모두 일곱 신위(神位)이나 여러 가지 설이 많다. 강남천자국에서 바다를 건너 제주도로 들어오는 영등신은 ‘바람의 신’으로 제주도에 들어와 한라산을 돌며 꽃씨를 뿌리고 들판에는 오곡의 씨를 뿌리며 바닷가에 우무·전복·소래·해삼 등의 씨를 뿌리는 생산의 신이기도 하다. 이 신이 제주도에 입도하는 초하루부터 제주를 떠나는 15일까지 영등굿을 하는데 1970년대까지는 거의 모든 집안에서 참여하였으나, 현재는 몇몇 집안에서만 전승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 듬북조문·지충개기

듬북조문·지충개기란 거름으로 쓰기 위해 바람에 쓸려 갯가로 밀려오는 해조류를 캐던 행위를 일컫는 말이다. 듬북이나 지충(주충, 지충이)은 하나의 개체를 지칭하는 명칭이라기 보다는 바닷바람에 밀려 갯가로 나오는 갈조식물문 > 갈조강 > 모자반목 > 모자반과에 속하는 해조류 전체를 이르는 말로 보아야 할 것이다.

듬북조문·지충개기 화산섬 제주의 척박한 토양에 지력을 높여 줄 수 있는 거름 문화를 이해할 수 있다. 광령리와 산간지역에서 밭농사를 많이 짓는 주민들은 1960년대까지 지속적으로 채취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화학 비료가 도입되면서 현재는 자취를 감추었다.

2.3. 3월

(가) 한식맹질

한식은 동지(冬至) 후 105일째 되는 날이며 양력으로는 4월 5일 무렵이다. 광령천 주변마을 주민들은 이대명절(二大名節)로 설, 추석을 꼽고 사대명절(四大名節)로 단오, 한식을 포함하기도 한다. 한식에는 성묘(省墓)를 하며, 손 없는 날 또는 귀신도 꿈쩍 않는 날이라고 여겨 산소를 보수하거나 비석 세우기 등을 한다. 그러나 3월에 한식이 들면 삼월부동(三月不凍)이라 해서 선묘에 손보기를 금한다. 또한 한식 차례를 지내는 가정도 있는데 제 모시는 사람이 초헌관이 되고 친척 중 돌아가면서 아헌관, 종헌관이 되어 대청마루에서 치러졌다.

(나) 묘제(墓祭)

묘제는 집안의 제례에서 지제(止祭)된 조상의 묘에 직접 찾아가서 지내는 제의를 일컫는 말이다. 예서(禮書)에는 묘제라고 하나 일상생활에서는 시제(時祭)·시사(時祀)라고도 한다. 『주자가례(朱子家禮)』에 묘제는 원래가 예가 아니라 하였으나 제주도 지역에서는 일반적으로 3월과 10월에 지낸다. 묘제의 일자는 선조의 생일을 기해서 지내는 경우도 있고 종친(宗親)들끼리 의논해서 제일을 정하는 경우도 있다.

2.4. 4월

(가) 부처님오신날

부처님 오신 날은 음력 4월 8일이며 불교의 연중 기념일 가운데 가장 큰 명절이다. 가족의 안녕과 집안의 무사를 빌기 위해 가까운 절에 가서 등을 달고 독경 불공을 드린다. 또한 이날에 머리카락을 자르면 머리카락의 색깔이 윤택해 지며 복을 받고 명이 길어진다고 믿어 아이들의 머리를 깎아 주는 풍속이 있다.

(나) 할마님 등국날

제주지역에서는 음력 4월 8일을 ‘맹진국 할마님 등국날’ 이라고도 한다. 맹진국 할마님은 하늘 옥황의 맹진국이라는 나라의 셋째 공주인데, 15세까지 자라는 동안 이웃을 도와 활인 공덕(活人功德)을 한다고 여기고 있다.

(다) 둔쇠

둔쇠란 ‘번쇠’ 또는 ‘쇠번’ 이라고도 하는데 마을의 소와 말을 한 곳에 모아 놓고 각 집안에서 하루 한번씩 번갈아 가며 차례로 당번을 맡아 방목하는 것을 말한다. 즉, ‘번갈아 가면서 먹이는 쇠’ 또는 ‘쇠 먹이는 당번’ 이라는 뜻이다. 보통 둔쇠 먹이기는 4월 새 풀이 돋아나기 시작할 때부터 10월 풀이 쇠서 없어질 때까지 반년 동안 이어지게 된다.

2.5. 5월

(가) 단오맹질

제주지역에서는 예로부터 음력 5월 5일은 단오(端午)맹질이라 하여 설, 한식, 추석과 더불어 4대명절의 하나로 생각하여 명절 차례를 지냈다. 그러나 오늘날에 와서는 설과 추석은 빠짐없이 명절 차례를 지내면서도 한식, 단오의 의례는 거의 지키지 않는다. 단오차례에는 기주떡(증편, 蒸片), 곤떡, 새미떡, 은절미 등의 떡과 육적(肉積), 해어(海魚), 실과(實果) 등을 제물로 차례를 지낸다.

(나) 약초캐기

단오날은 차례를 지내는 이외에, 솔봉, 뗏순, 검은콩, 보리골, 검은 쇠똥 등을 모아 두었다가 약으로 고아 먹는 풍습이 있었다. 향언에 따르면 “단오 때는 만물이 무르익어 기운이 찬 때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약이 된다”고 하여 여자들은 이슬이 마르기 전에 여러 약초를 캐어 말린다. 주로 집 주변에 흔한 쑥과 익모초, 인동 등 백 가지 약초를 캐어 처마나 외양간에 매달아 말린다. 이렇게 말린 약은 집안에 임산부가 해산했을 때 요긴하게 쓸 뿐만 아니라 백중날 걸보리로 엮기름을 놔 말렸다가 ‘선달 첫 납일’ 에 엮을 고아 먹으면, 만병에 효험이 있다고 한다.

2.6. 6월

(가) 밧(밭)밭림고사(제석할망고사)

광령천 주변마을의 재배작물 중 많은 부분을 차지 했던 것이 보리, 조이다. 그중 조의 파종은 6월 절(소서)을 기준으로 하여 전후 3일이다. 조는 씨가 작기 때문에 말이나 소를 이용해

잘 밟아주어야 발육이 잘 된다고 한다. 이러한 작업을 ‘밭 립(밭밟음)’이라 한다. 광령리의 경우 인근에 목장이 많았으므로 마소를 관리하는 테우리들에게 부탁했다고 하는데 밧밭릴 때는 밧 주인들이 테우리들을 잘 대접해 주었다. 때로는 제물을 차려 놓고 농경신(農耕神)인 ‘제석할망’에게 비는 ‘밧 리는(밭 밟는) 고사’ 또는 ‘제석할망 고사’를 지내는 풍속도 전해졌다고 하나 근래에는 조를 재배하지 않기 때문에 전승되지 않는다.

(나) 닭잡아 먹는 날

음력 6월 20일이 되면 광령천 주변마을 주민들은 만병통치약이라 하여 닭을 잡아먹는데 이날을 ‘닭 잡아 먹는 날’이라 부른다. 근래에는 시장에서 사다가 먹지만 불과 30여 년 전까지도 집집마다 닭을 키웠다. 이른 봄에 간 병아리를 마당이나 우영(텃밭)에 풀어서 기르면 6월 정도가 되면 중닭으로 자랐기 때문에 집집마다 3~4마리는 기르는 것이 보통이었다고 한다.

2.7. 7월

(가) 백중(百中)

백중은 음력 7월 15일에 해당하며 백중(百種), 중원(中元), 망혼일(亡魂日)이라고도 불린다. 이 시기에는 농번기가 끝나고 추수를 하기 전에 잠시 농사일을 멈추고 천신(天神) 의례를 지내는 백중제(百中祭)를 지내고 잔치와 놀이판을 벌인다. 또한 백중부터 농한기가 시작된다고 해서 농부들이 밭을 씻는 ‘밭씻기’를 했는데, 이는 농사가 끝났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백중(百中)이란 옥황상제의 명을 받아 곡식과 가축을 지키는 목동의 이름이며 이 목동의 영혼을 위로하는 제사가 백중제요, 그 제삿날이 7월 14일로서 백중날이라는 설이 있다. 구전(口傳)에 따르면 “제주도의 목동이 곡식과 가축을 지키려고 옥황상제의 명을 어겼는데, 이로 인해 노여움을 받아 스스로 자결하였다. 그 후 농민들이 그가 죽은 날인 음력 7월 14일을 백중일이라 하여 제사를 지내어 그의 영혼을 위로하였다.”고 하며 그 제사가 곧 백중제라고 이야기하기도 한다.

(나) 백중굿(백중제, 테우리코사, 쉼명질)

제주지역에서는 음력 7월 14일이 되면 백중굿 또는 백중제를 지낸다. 일반적으로 백중굿은 무당이 주관하는 무속 제의이고 백중제는 마소들을 기르는 사람들이 믿었지만 광령리의 경우 개인차는 있지만 부녀자들도 많이 믿었다고 한다. 백중굿(백중제)에는 마을 부녀자들은 보리쌀, 팥 등 곡식을 갖고 무당의 집에 찾아가서 가정의 안녕을 빌고 ‘우리 아덜 이번에 육지 가는데 어땡 일이 잘될 것인지 봐 줘서’, ‘우리 아덜 금년 운수나 한번 봐 줘서’ 하면서 가족들의 일 년 운수도 보는데 요즘처럼 돈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보리쌀이나 팥 등을 갖다 주었다고 한다. 그러면 심방이 쌀점을 쳐서 그 결과를 기원자에게 전한다. 또 한라산에 ‘백

중와살'이라는 산신이 있어 백중을 고비로 익은 오곡과 산과(山果)를 사람들이 따 가면 허전하여 샘을 낸다고 하여 산신제를 지내기도 한다.

(다) 물맞이

제주도의 냇가는 건천(乾川)이라 비가오지 않으면 말라 버리지만 광령천은 각지에 소(沼)와 폭포(瀑布)가 있어 물맞이하기 좋은 장소라고 한다. 백중 전후에는 '백중물'이라 하여 이날 물을 맞으면 윗병, 허릿병, 열병, 냉병을 비롯한 속병까지도 고쳐주며 겨울 감기에 걸리지 않는다고 한다. 또한 백중물은 약물이라 하여 이날 바닷가로 흘러 떨어지는 물을 떠먹기도 한다.

(라) 백중물천(바릇잡기)

백중물천이란 백중날의 해물(海物)을 뜻한다. 음력 7월 14일 백중날에는 다른 날보다 구쟁기(소라), 보멸(소라), 오분자기 등 많은 바르기(해산물)가 많이 잡힌다고 한다. 외도동 주민들도 이날이 되면 바닷가로 나가 해산물을 채취하는데 심지어는 많은 사람들이 밤에 횃불을 들고 밤 늦게까지 해산물을 잡는 경우도 있다.

2.8. 8월

(가) 소분(掃墳)

소분(掃墳)이란 '모듬 소분'이라고도 불리는데 선묘(先墓)에 대한 벌초(伐草)를 말하는 것이다. 광령천 주변마을 주민들은 이 세시풍속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는데 아직도 음력 8월이 되면 육지에 나갔던 자식들까지 모두 찾아와 함께 벌초하는 전통이 지속되고 있다. 주로 음력 8월 초부터 시작하여 추석 전에 끝낸다. 제주 속담에 "추석 전이 소분 안?민 자왈 썩 멩질 먹으레 온다.(추석 전에 벌초 안하면 덩불 쓰고 멩질 먹으러 온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추석 전에 벌초를 꼭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뜻이다. 벌초 순서는 윗대 조상의 묘역을 벌초한 연후에 아랫대로 내려오기 때문에 2~3정도 걸리는 집안도 있다.

(나) 추석멩질

음력 팔월 보름을 일컫는 말인데 '팔월멩질', '가실멩질'이라고도 부른다. 가을의 한가운데 달이며 또한 팔월의 한가운데 날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 연중 으뜸 멩질이다. 추석멩질이 돌아오면 가정에서 조상에 대한 차례를 지내는데 광령천 주변마을 주민들은 추석 차례를 지내기 전에 먼저 문전제를 지낸다. 문전제는 문을 지키는 문전신에게 지내는 제사이다. 추석 차례의 순서는 집집마다 다르지만 기제사(忌祭祀)와 비슷하다. 일반적으로 먼저 초헌관(初獻官)이 분향을 하고 삼헌관(三獻官)이 함께 배례한 뒤 초헌(初獻)·아헌(亞獻)·(終獻)

을 올린 다음 다시 초헌관이 첨작을 한다. 잠시 쉰 뒤에 송농을 올리고, 이어 하직 배례를 하고 잡식을 하여 철상한 뒤 음복을 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다) 출베기(꼴베기)

음력 8월 중순이 되면 한 겨울동안 가축을 먹일 꼴(출)을 베어 말린 다음 집으로 운반하여 주저리를 만들어 월동 준비를 하게 된다. 광령리에서 인근에 초지(草地)가 많아서 꼴을 수급하는데 큰 문제가 없었다고 하나 외도동에서는 농토 중 척박한 땅을 골라 일부러 꼴을 심었다고 한다.

(라) 말뚝줍기(말뚝줍기)

제주도 일부지역 주민들은 음력 8월 중순이 되면 ‘멜망탱이’를 둘러메고 산과 들에 나가 말뚝을 줍는다. 이렇게 주워 모은 말뚝은 잘 말려 두었다가 10월 달부터 이듬해 2월 달까지 아궁이에 불을 댈 때 연료로 사용한다. 특히, 광령리 인근에는 목장이 많아 말뚝을 구하기 쉬웠기 때문에 가을철 난방 연료로 많이 사용했다고 한다. 말은 초식동물이기 때문에 일단 불이 붙으면 한꺼번에 타버리지 않고 서서히 타며, 화력 또한 세기 때문에 ‘굴뚝’을 때는 연료로서 좋았으나 화석연료가 도입된 이후부터 사라진 풍습이다.

2.9. 9월

(가) 철갈이

음력 정월 또는 첫가을(9월)에 택일하여 행하는 계절제다. ‘철 갈이’란 ‘계절을 바꾼다’는 뜻으로 계절이 바뀌는 시기에 행하는 제의(祭儀)라는 뜻이다. 이 제의는 울타리 안 뒤꼍에 ‘뒷할망’ 또는 ‘뒷칠성’이라 부르는 부신(富神) ‘칠성부군(뺨)’을 모시고 있는 집에서 행해진다. 광령천 주변마을 주민들 대다수는 이 풍속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몇몇 제보자들은 시어머니가 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고 제보하였다. 조사 자료를 종합해보면 신체(神體)는 뒤꼍의 한쪽 구석에 모시는데, 기와 한 장을 지면에 갈아서 오곡의 씨를 놓고 그 위에 다시 기와 한 장을 덮은 후 비가 새어 들지 않도록 띠를 엮어 덮어 모신다. 이 제의는 이 신을 주 대상으로 하여 풍농과 부를 기원하고 기왓장 속의 오곡의 씨를 새 곡식으로 갈아 넣어 덮고 문신·조왕 등 울타리 안의 여러 신들에게 문전제 때와 같이 안전을 빈다.

(나) 무조(巫祖) 탄신일(심방의 생진일)

제주지역 심방(무속인)들은 9월 28일을 ‘삼시왕(명도조상)’의 탄생일로 여기고 자기 집에서 사흘 간 큰 굿을 한다. ‘삼시왕(명도조상)’은 최초로 굿을 하게 된 무당의 시조(始祖)로 여겨지는 신인데 이에 대한 이야기가 제주도 무속에서 구송되고 있는 <초공본풀이>라는 신

화 속에 나타나 있다. 제주도 무속에는 과거에 굿을 했던 무당들을 차례로 불러 모시는 ‘공시풀이’라는 소제차가 있는데, 이 내용은 예로부터 지금까지 제주지역에서 무업에 종사했던 심방(무속인)들을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심방의 생진일이 되면 마을 주민들도 심방의 명절날이라 하여 누구나 부조를 가지고 가서 굿을 구경하러 간다. 그러나 9월에 태어나면 팔자 그르친 심방의 태어난 날이라 해서 좋지 않다고 하는 속설도 있다.

2.10. 10월

(가) 귀표코스(귀표고사, 耳標告祀)

귀표고사는 목축을 생업으로 하는 집안에서 10월 상사일에 우마(牛馬)의 귀에 표시를 하면서 지내는 고사이다. 귀표고사 때에는 소나 말의 귀에 표시를 하고 엉덩이에 낙인을 찍은 다음 곡식을 차려 놓고 고사를 지낸다. 현재는 전승되지 않지만 광령리 주민들 중에서는 귀표고사를 지내는 것을 본 적이 있는 주민들이 몇몇 있었다. 우마의 엉덩이에 찍는 낙인의 글자는 마을 단위로 새기거나 집안마다 달리하여 구분하는데, 이는 ‘쉬를 쫀다(우마를 방목하는 일)’ 할지라도 소유주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2.11. 11월

(가) 동지 팔죽

광령천 주변마을 주민들에게 동지의 풍속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팔죽이다. 마을 대다수 사람들은 동지를 “팔죽 쑤어 먹는 날”로 기억하고 있으며 현재도 활발히 전승되고 있는 세시풍속이다. 동지는 해가 가장 짧은 날이라 음(陰)이 극에 달한 날이어서 음성인 귀신이 성하는 날이다. 이를 물리치기 위해 양(陽)을 상징하는 붉은 팔죽을 먹어 사악한 것을 막고자 하였다. 붉은 색이 주술적인 위력을 지닌 것으로 믿었다. 그래서 태양, 불, 피 같은 붉은 색을 생명과 힘의 표식으로 삼았고 이를 숭상한 것이다. 또한 집집마다 다르지만 팔죽을 쑤어먹기만 한 것이 아니라 집 어귀와 우영에 숟가락으로 떠 뿌리면 액을 막기도 한다. 그러나 동지가 동짓달 초열흘(음력 11월 10일) 전에 들면, ‘애기 동지’라고 하여 아기가 있는 집에서는 팔죽을 쑤지 않는 경우도 있다.

(나) 지붕 잇기(지붕임)

새마을운동 전 광령천 주변마을 대부분의 주택은 초가였다. 초가의 지붕은 띠(茅)로 1~2년마다 한 번씩 새롭게 덮어야 하는데 그 시기는 보통 음력 10월에서 12월초까지이다. 그러므로 매년 띠를 이용해 지붕잇기를 하는 것은 마을내 큰 일 중 하나였다. 지붕 잇기는 주민들이

스스로 수놓음(품앗이)을 하여 도와주는데 지붕 잇는 날은 천화일(天火日)을 피한다. 천화일은 자(子), 오(午), 묘(卯), 유(酉) 등 4일을 말하며, 이 날은 멸망일로 치고 지붕을 손보지 않으며 이 금기(禁忌)를 지키지 않으면 우환(憂患)을 초래한다고 믿는다. 한반도의 다른 지역에서는 벼짚을 엮어서 지붕을 일지만 바람이 많이 부는 제주에서는 짚 대신 띠를 사용하여 엮지 아니하고 그대로 펴서 집줄(굵은 새끼)로 엮어맨다. 지역에 따라서는 긴 나무로 집줄을 맨 위를 누르기도 하였다

2.12. 12월

(가) 추렴(몰추렴, 접쉐잡기)

추렴은 고기가 필요한 사람들끼리 모여 소나 돼지를 잡아 나눠가지는 것을 말한다. 광령천 주변마을 주민들도 아직까지 명절을 앞두고 추렴을 하는 경우가 있다. 추렴의 방식을 추렴을 할 때 공평히 나누기 위하여 머리부터 꼬리까지 부위별로 구분하는데 각 부분별 명칭은 ①대가리(머리), ②목도래기(턱이 붙은 모가지), ③접작뼈(頸皮肩胛), ④전각(앞다리), ⑤갈비, ⑥슴(胸部), ⑦일룬(腰權部), ⑧후각(뒷다리), ⑨부피(薦推部), ⑩내장(內臟)이다. 이렇게 추렴하는 날이면 즉석에서 먹을 수 있는 부위는 회원들이 나누어 먹기도 한다.

(나) 납햐엿(납햐엿)

동지로부터 세번째 미일(未日)은 납햐날(蠟享日)이다. 납햐날에는 엿을 고아먹는 풍속이 전해오고 있다. 납햐날에 만드는 엿은 깨엿, 꿩엿, 닭엿, 고치엿, 갈근엿, 호박엿, 소양가시엿, 단엿 등이다. 광령천 주변마을 주민들의 속담에 “동짓날에 꿀 놓양 납햐날(蠟享日)에 엿을 했당 떡곡, 또시 굳인 허멀에도 보르민 존다(동지날에 엿기름을 넣어서 납햐 날에 엿을 고았다가 먹고, 다시 굳인 부스럼에도 바르면 좋다)”는 말이 있어, 이날에 고은 엿은 만병통치로 좋은 약이 된다고 믿는다.

(다) 신구간

신구간은 대한(大寒) 후 5일에서 입춘(立春) 전 3일 사이로 보통 일 주일 정도이다. 이 때 인간 세상을 관장하는 1만 8천여 신들이 모두 하늘로 올라가 옥황상제에게 한 해 동안 일어난 일을 보고한 뒤 새로운 임무를 부여받고 내려온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신들의 부재(不在) 기간이므로 무슨 일을 해도 탈이 없다고 믿기 때문에 이사나 집수리 등 평소 금기(禁忌)되었던 일들을 한다.

참고문헌

- 제주도, 2006, 『제주도지』, 제주도.
- 진성기, 2010, 『제주의 세시풍속』, 디딤돌.
- 국립문화재연구소, 2001, 『제주도 세시풍속』 국립문화재연구소.
- 한국민속학회, 2008, 『민속놀이 축제 세시풍속 통과의례』, 민속원.
- 고재환, 2002, 『제주도 속담사전』, 민속원.
- 박물관운영부, 2010, 『제주 유교식 마을제의 전승현장』, 제주특별자치도문화진흥본부..
- 제주도 · 한라산생태문화연구소, 2006, 『한라산의 하천』, 도서출판 각.
- 외도동향토지편찬위원회, 2005, 『외도동향토지』, 도서출판 각.
- 노형지발간위원회, 2005, 『노형동지』, 반석원색인쇄사.
- 광령1리, 1990, 『광령약사』, 재승종합인쇄사.